

민생은 '3高 투쟁' ... 3당은 '당권 투쟁'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정부 경제위기 해법 못 찾고
국힘, 대표 징계 내용 본격화
민주, 당권싸고 계파간 갈등
정의, 국회의원 총사퇴 서명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3고 위기'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보다 내부 혼란에 빠져 있어 민심은 폭염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다.

당장, 여야의 이견으로 하반기 국회는 아직까지 원 구성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당 대표 사퇴 사태에 직면한 상황이다. 여기에 제1야당인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권력 투쟁 양상이 전개되는 등 전열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거대 여야 사이에서 소급 역할을 해야 할 제3당 정의당까지 대선·지선 패배의 후폭풍에 흔들리는 등 정치권 전반이 그야말로 혼돈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생 경제는 말 그대로 최대 위기 국면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로 올라섰다. 불붙은 물가 상승 속도를 감안하면 조만간 물가상승률이 7~8%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 당장 이담부터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에 올랐고, 내달에는 예년보다 이른 추석과 휴가철 영향 등 물가 자극 요인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 같은 물가 상승은 금리 인상을 견인, 이자 비용 등으로 실질소득 감소에 허덕이는 서민층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수출 기업은 물론 내수 시장도 영향을 받으면서 중소기업,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은 올 하반기 민생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하지만, 심각한 경제 위기 국면에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야 할 정치권은 오히려 민생에 짐이 되고 있다. 하반기 국회는 여야의 이견으로 국회의장단 만을 선출한 채, 아직 원 구성도 못하고 있다. 민생 압박, 추경 지원 등 신속한 해법 마련의 길이 막혀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정에 책임이 있는 여권은 대혼란 국면이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유류세 인하 등 민생 행거기에 나서고 있으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평가다. 여기에 인사 실패 등이 부각되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국정 운영의 역량도, 진정성도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집권 여당은 새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대표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윤리위원회 중징계로 사퇴 위기에 직면한 이 대표의 재심 청구는 물론 징계 효력정지 가치분 신청 등 법적 다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내 세력이 크지 않아 이를 관철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물가에 과일값 폭등 11일 오후 광주 서부농산물시장 내 채과동에 수박, 복숭아, 자두 등의 여름과일들이 진열되어 있다. 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만500원선에서 거래되던 7kg짜리 수박이 올해는 30% 가량 오른 1만4000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 대표의 사퇴를 기정사실화 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와 전당대회 개최론이 제기되는 등 차기 당권 등을 둘러싼 당의 내홍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이 같은 여권의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0%대로 급락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도 민생에 희망을 주지 못하는 처지이다. 민심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반성과 혁신은 실종되고 친명(친 이재명)과 반명(반 이재명)으로 갈려 반목하고 있다. 차기 공

천권이 담긴 당권을 둘러싸고 계파 간의 갈등만이 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당 내외에서는 반성을 토대로 하는 혁신이 이슈가 아닌 대세론에 기반한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구도가 고착화되면서 제1야당의 역동성이 사라졌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대세에 순응하는 의원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전당대회 이후가 더 격정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상임고문은 지난 10일 광주를 찾은 등 본격적인 당권 도전 행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 상임고문이 속고 명분으로 민생의 현장과 혁신의 선봉에 서기보다 정치적 이해득실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제3당인 정의당도 대선·지선 패배의 후폭풍에 직면하고 있다. '비례 국회의원 총사퇴'를 권고하는 당원 총투표 발의안이 당원 서명을 받은 절차에 들어갔다. 최악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 전원 이 사퇴하고 다음 순번이 의원직을 승계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 정의당은 심상정의원을 제외한 5명이 모두 비례대표다. 진보 정당마저 나아갈 길을 잃으면서 경제 위기 속 민생이 지할 곳은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종부세 명칭 '국토균형세'로 변경 추진

다주택자 세 부담 경감 방안 논의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신설된 종부세 명칭을 17년 만에 바꾸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종부세는 국세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만큼 지역 간 재정 불균형 완화 및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다만 이름을 바꾸는 것이지 실질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고가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저가 2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이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했을 때만 종부세를 내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해도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공시가격 합산액 11억원 이하의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절반 가량으로 낮춰주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중소기업협 세계대회
내년 7월 광주에서 열린다
세계 70개국 1천여 명 참석

광주시가 미국 샌디에이고를 제치고 2023년 세계중소기업협회의 세계대회를 유치했다. 광주시는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022 세계중소기업협회의 이사회에서 유적 경쟁 도시인 미국 샌디에이고와 접전 끝에 '2023년 세계중소기업협회의 세계대회(ICSB World Congress)' 개최 도시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세계중소기업협회의 세계대회는 1955년 개최 이후 올해 67회째를 맞는 기업인과 산학 기업 전문가들의 교류의 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서울시가 최초로 개최했으며, 광주시는 국내 두 번째 개최 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세계중소기업협회의 세계대회 유치로 글로벌 마이스 도시 광주 홍보는 물론 전 세계 산학 관계자와 지역 기업인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 교류 및 중소기업 수출 증대, 투자 유치 등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2023년 세계중소기업협회의 세계대회는 내년 7월 9-1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70여 개국 1000여 명의 국내외 기업인, 중소기업 관련 정책 입안자, 대학교수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대회와 연계한 각종 행사도 펼쳐진다. 광주시는 대회 기간 맞춤형 비즈니스 회의와 각종 포럼, 기업 전시회, 투자 설명회, 기업 홍보활동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2018년과 2019년 2차례 세계중소기업협회의 세계대회 유치를 신청했으나 고배를 마셨으며, 지난해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관광재단과 공동으로 적극적인 유치전을 펼쳐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 이어 이번 세계중소기업협회의 세계대회까지 유치에 성공하면서 호남을 대표하는 마이스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행락철 국토변 특산물 노점상 '골머리' ▶6면

청정 힐링의 땅 전남이 뜬다 ▶11면



굿모닝 여행 - 강진 여행·로컬브랜드 ▶18-19면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Mercedes-Benz Certified

이보다 쉬울 수 없다. 가장 손쉽게 만나는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변함 없는 클래스의 인증 중고차들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온라인샵에서 주문해 보세요.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편리하게, 빠르게.

- 온라인 결제 시스템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중대
- 국내 수입처 최다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 Trade-in 프로그램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 1년 / 2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4-0001 & 행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신구 임방울대로 565(도전동)